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3.16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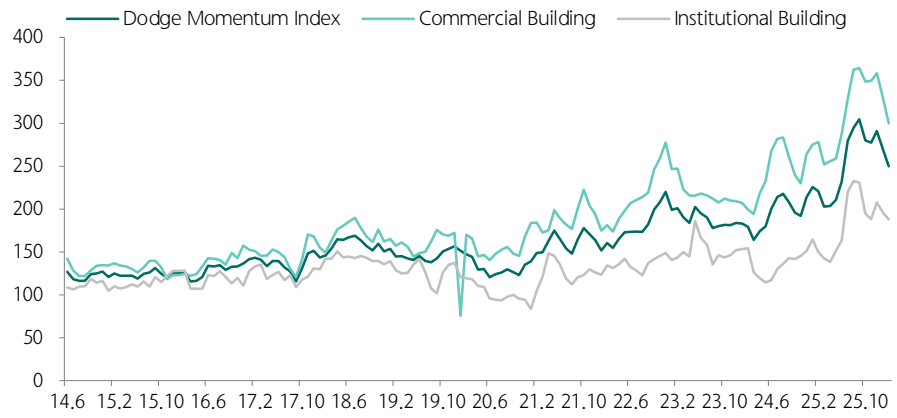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주간 이슈: 인공지능 투자 계획은 여전히 견조

미국 건설 계획과 수출입 지표가 보여주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장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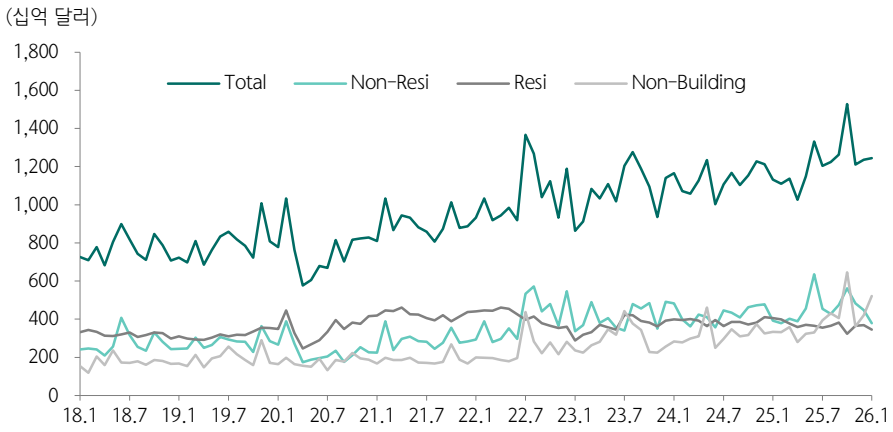
-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건설 계획과 수출입 지표를 감안할 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건설 계획 지수의 완만한 둔화는 높은 기저 이후의 정상화에 가까우며,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 수출입 중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중심의 견조한 흐름은 AI 수요가 실제 장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정학적 위기가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I 밸류체인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시스템 수준의 수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 미국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 DMI)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계획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DMI는 250(YoY +18.7%, MoM -7.3%)이다. 세부 항목별로 상업용 건물 건설 계획(Commercial Building, CB)은 300(YoY +12.3%, MoM -8.9%), 기관 건설(Institutional Building, IB)은 188.1(YoY +34%, MoM -4%)다. 상업용 건물 건설 계획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한 증가율은 YoY +4.4% 수준이다. 2월에는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가 23건이 계획됐다. 주요 상업 프로젝트로는 텍사스주 휘트니의 5억 달러 규모 사이러스원 데이터센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4억 4,800만 달러 규모 TX12 데이터센터, 텍사스주 윌머의 QTS DFW2 데이터센터 5번 및 6번 건물(각 2억 9,000만 달러) 등이 있다.
- DMI의 특성을 감안하면 계획과 달리 건설지출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알파벳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지출의 60%는 서버, 40%는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킹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본지출의 3분의 2를 단기 자산(서버 등)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분간 자본지출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센터 관련 단기자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2026년 1월 미국의 상품 수출입 지표도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집행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1월 미국의 상품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2,760억 달러다.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 세부 항목을 식료품, 산업용 소재,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재 수입은 2025년 매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2026년 1월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YoY, 식료품 -15.3%, 산업용 소재 -45.3%, 자본재 +25.2%, 자동차 및 부품 -19.2%, 소비재 -32.2% 등). 자본재 중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발전기 및 부품, 통신장비 등의 수입 증가가 이를 견인했다. 이들 품목은 서버, 네트워킹, 전력 인프라 등 데이터센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 1월 미국의 상품 수출은 1,948억 달러(YoY +13.5%)다. 세부 항목별 YoY 증감은 식료품 +5.4%, 산업용 소재 +20.5%, 자본재 +18.1%, 자동차 및 부품 -9%, 소비재 -6.5% 등이다. 자본재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1월 반도체 수입은 YoY +35.3%지만, 반도체 수출은 YoY +8.5%다. 칩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완성된 시스템' 형태로 가치가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 및 프로세서 기업들의 전략과 부합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2025년 7월 AI 수출 전략으로 전 세계 인프라 장악을 강조했다. 엔비디아, AMD도 이에 맞춰 칩 단품 판매를 넘어 시스템 단위의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도표1.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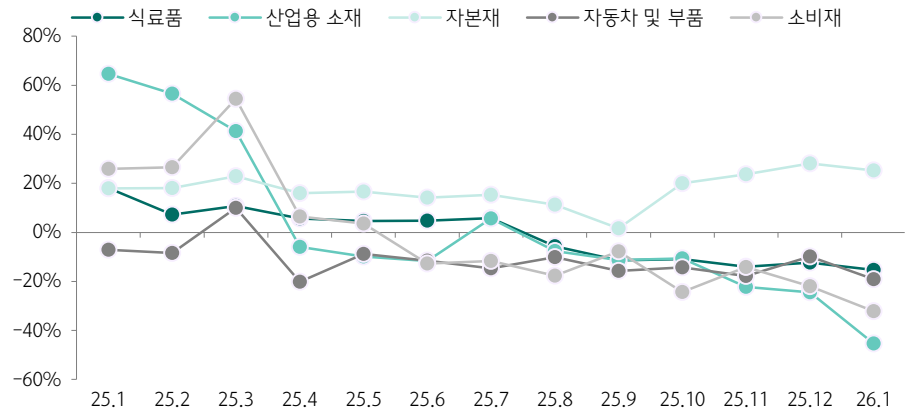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2.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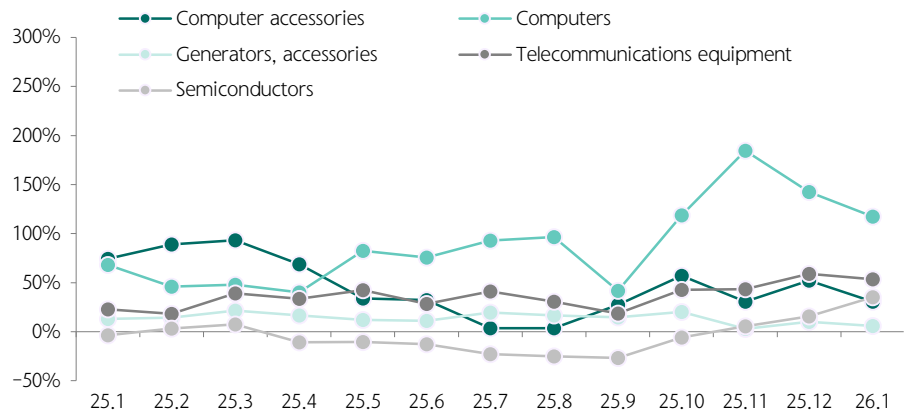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도표3. 미국 상품별 수입 세부 항목별 YoY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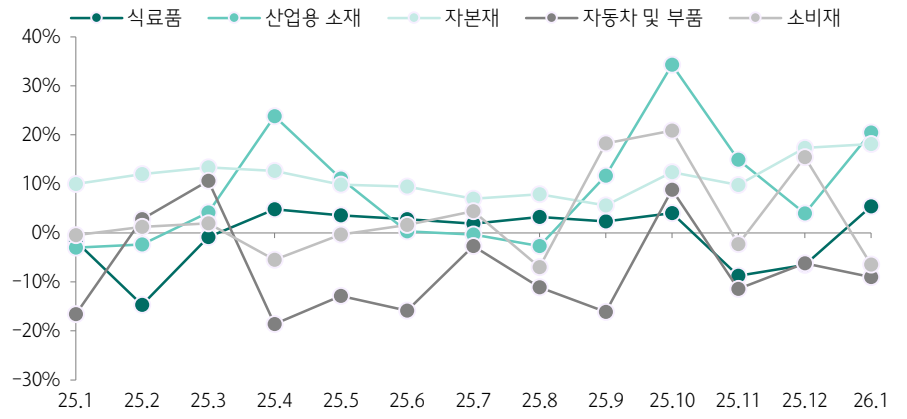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4. 미국 자본재 중 견조한 YoY 증감 추이를 보인 항목들(반도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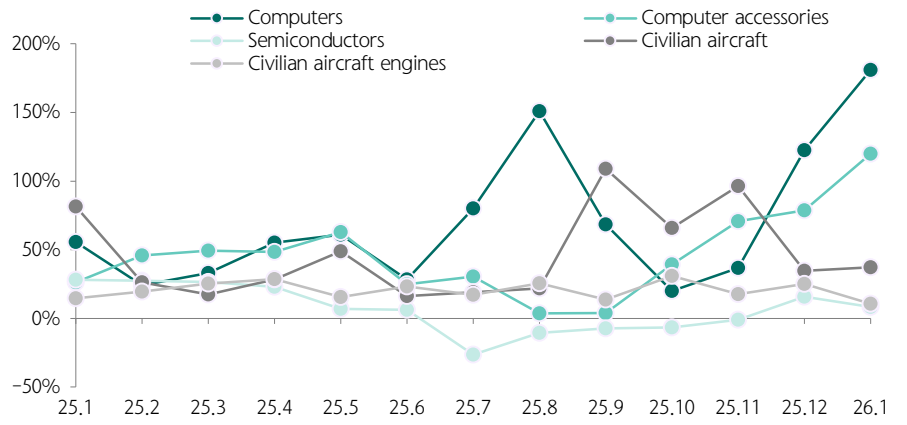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5. 미국 상품별 수출 세부 항목별 YoY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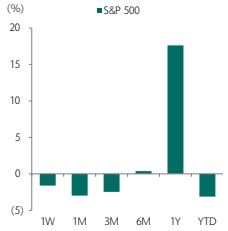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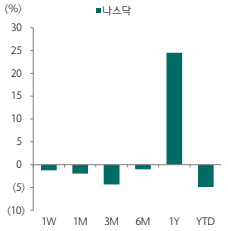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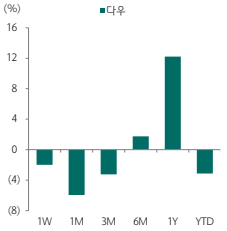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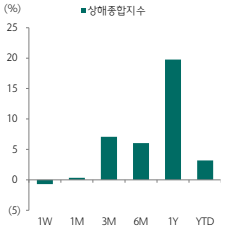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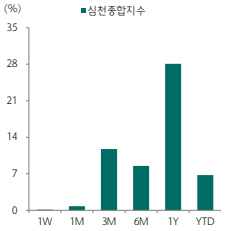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도표6. 미국 자본재 중 견조한 YoY 증감 추이를 보인 항목들



자료: Census,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6,632.2	22,105.4	46,558.5	4,095.4	2,701.4
1W (%)	-1.6	-1.3	-2.0	-0.7	0.1
					

주) 3월 13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3월 9일~3월 13일) 리뷰: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통화정책 불안 지속

- 3월 2주차 미국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 S&P 500은 1.6%,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내렸다. S&P 500 동일가중지수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의 수익률은 -2.4%, -1.8%다.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및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엔 성장주 대비 가치주 우위, M7보다 시장참여자들의 비(非) M7 선호가 나타났다. 성장주 ETF(VUG), 가치주 ETF(VTV), M7 ETF(MAGS), 비(非) M7 ETF(XMAG) 등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1.7%, -1.4%, -1.7%, -1.6%다.
- 상승 섹터는 에너지(+2%)와 유틸리티(+0.5%) 등이다. 에너지는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 상승을 야기한 덕분이다. 유가 상승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태양광 산업 ETF(TAN)의 주가는 3.9% 상승했고, 주요 기업인 퍼스트솔라(FSLR), 엔페이즈 에너지(ENPH), 솔라엣지(SEDG), 숄즈 테크놀러지스(SHLS) 등의 주간 수익률은 +3.6%, +9.6%, +12.1%, +7.4% 등이다. 미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대체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하락 상위는 금융(-3.3%), 경기소비재(-3.1%), 산업재(-3.1%) 등이다. 금융은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악재로 작용했다. 2월 19일 블루 아울 캐피탈은 비상장 BDC의 분기 환매 종료를 발표했다. 3월 11일 클리프워터의 약 325~330억 달러 규모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약 14%까지 늘었고, 1분기 환매 한도를 최대 7% 수준으로 제한했다. 블랙록의 자회사 HPS 인베스트먼트도 260억 달러 규모 사모대출 펀드의 분기 환매 한도를 전체 지분의 5%로 한정했다. '그림자 파산'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기소비재와 산업재는 경제 불안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M7 중에선 엔비디아(+1.4%)와 알파벳(+1.3%)만 상승했다(TSLA -1.4%, AMZN -2.6%, AAPL -2.9%, MSFT -3.3%, META -4.8%). 우리가 지난 3월 월간 자료(모멘텀과 Buy The dip, Two-Track 전략, 2026. 3.9 발간)를 통해 Buy The Dip 관점에서 제안한 종목들이다. 견조한 실적 대비 주가 약세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AI 대장주이면서 사모 대출 불안이 부각되는 국면에서 현금 흐름 가시성이 높다는 강점도 부각됐을 여지가 있다. 반도체 ETF(SOXX)는 지난주 2.4% 올랐다.
- 메타는 12, 13일 동안 6.3% 하락했다. 12일은 시장 리스크 오프 영향이 있었으나, 13일엔 고유 리스크가 부각됐다.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의 공개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보카도는 메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AI 모델이다. 출시 지연 소식에 인공지능 경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메타가 밀릴 수 있다는 불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아보카도는 3월 중순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5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성능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었다. 아보카도 출시 일정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메타의 인력 감축 소식도 있었다.
- 테슬라는 xAI에 투자했던 지분을 스페이스X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가 보유하게 되는 스페이스X 지분이 1% 미만일 것이라고 한다. 테슬라의 반도체 직접 생산 추진 계획 소식도 있었다(테라팹). 목적은 반도체 공급 제약 극복이다.

≫ 이번 주(3월 16일~3월 20일) 프리뷰: 지정학적 리스크, GTC, FOMC, 마이크론 실적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엔비디아의 GTC, FOMC 등에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전쟁에 대한 걱정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FOMC에서 파월 및 연준 위원들의 현 상황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다. 현지시각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일주일 동안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함께 유가 통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인플레이션 완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증시 변동성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3월 월간 자료(모멘텀과 Buy The Dip, Two-Track 전략, 2026. 3.9 발간)에서 조지 W. 부시 사례를 통해 증시 하락이 지지율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이기 때문이다.
- 올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 요인 중 하나는 통화정책 완화일 것이다.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파월 의장이 5월에 퇴임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새로운 연준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FedWatch에 따르면 2월 13일 기준 3월과 4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0.8%, 70.1%였고,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2월 13일 시장참여자들이 예상한 금리 동결 가능성은 31.4%, 25bp 인하 전망은 51.2%, 50bp 금리 인하 예상은 16.3%, 75bp 금리 인하를 기대는 1.2%였다. 3월 13일 기준으론 동결 76.2%, 25bp 인하 22.6%, 50bp 인하 1.2%다. 지정학적 위기가 유발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반영됐다.
- FOMC에선 시장참여자들의 전망처럼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일부 친(親)트럼프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시장참여자들은 이들을 감안하지 않고 성명서와 점도표를 해석할 여지가 크다. 기준 금리 발표 전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시장은 전월 발표치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된다면 증시는 불안해할 것이다.
- 현지시각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의 GPU 기술 컨퍼런스인 GTC 2026이 시작된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파인만 등 향후 기술 로드맵의 진척 상황 등을 시장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통신 관련 기업들과 이에 투자한 시장참여자들은 광통신의 본격 상용화 시점을 가늠해 볼 것이다. 엔비디아의 추론용 AI 칩이 공개될 여지도 있다. 인공지능 학습시장에선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지대하나,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추론 시장에선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추론용 칩은 학습용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엔비디아가 추론 전용 가성비 뛰어난 AI 칩을 공개한다면 이러한 논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피지컬 AI 로드맵도 기대한다.
- 18일 마이크론의 실적도 국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사다.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에서도 견조한 메모리 업황을 증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실적에선 이번 분기 가이던스와 컨센서스와의 괴리가 발생했는데, 시장참여자들의 전망치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부 구조조정 영향이다. 이번 분기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지난 분기처럼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사이에 과도한 차이는 없을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할 요소 중 하나는 자본지출 가이던스다. 메모리 업황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수요 대비 제한적인 공급 영향이다.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 생산을 급격히 늘리진 않을 것이다.
-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와 이벤트로는 16일 3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예상치 4.0, 이전치 7.1), 2월 산업생산(MoM, 예상치 +0.1%, 이전치 +0.7%), 제조업 생산, 설비가동률, NAHB 주택시장지수, 17일 2월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 18일 2월 PPI(MoM, 예상치 +0.3%, 이전치 +0.5%), 2월 핵심 PPI(MoM, 예상치 +0.3%, 이전치 +0.8%), 1월 공장주문(MoM, 예상치 +0.4%, 이전치 -0.7%), EIA 주간 원유재고, 19일 FOMC 기준금리 결정, 경제전망, 성명서, 파월 기자회견, 1월 건축허가(예상치 1.376백만건, 이전치 1.455백만건),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예상치 17.5, 이전치 16.3),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1.5만건, 이전치 21.3만건), 1월 신규주택판매(예상치 72.3만건, 이전치 74.5만건)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16일 DLTR, 17일 LULU / TME / ZTO / DOCU / OKLO, 18일 MU / JBL / GIS / FIVE / M, 19일 BABA / ACN / FDX / PL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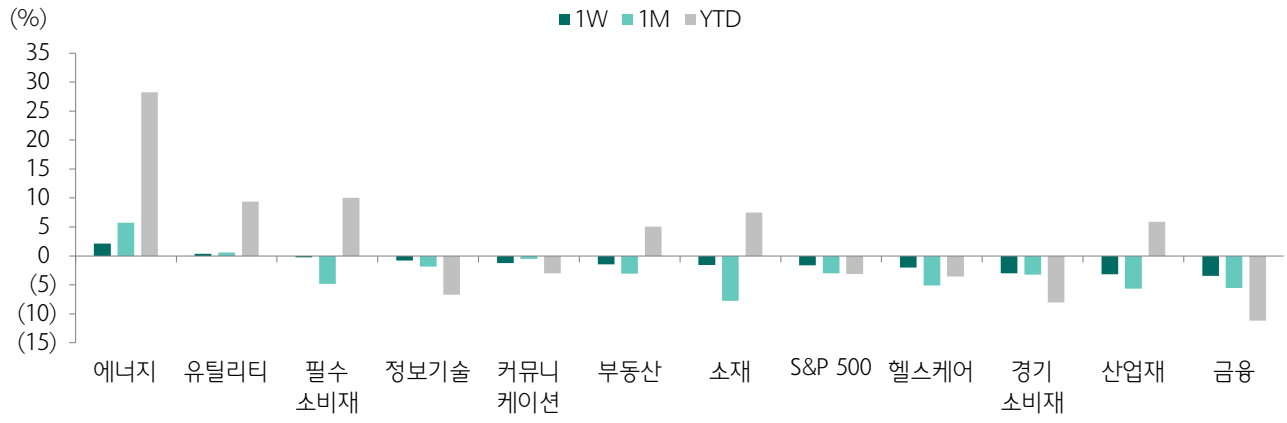
* 캐빈 워시가 지명됐으나, 아직 인준과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3/13)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6,632.2	-0.6	-1.6	-3.0	-2.5	0.4	17.6	-3.1
나스닥	미국	22,105.4	-0.9	-1.3	-2.0	-4.4	-1.0	24.5	-4.9
다우	미국	46,558.5	-0.3	-2.0	-5.9	-3.2	1.7	12.2	-3.1
STOXX600	유럽	595.9	-0.5	-0.5	-3.7	2.8	8.2	9.0	0.6
KOSPI	한국	5,487.2	-1.7	-1.7	-0.4	37.2	59.1	113.8	30.2
KOSDAQ	한국	1,153.0	0.4	-0.1	4.2	25.9	35.3	57.0	24.6
상해종합지수	중국	4,095.4	-0.8	-0.7	0.3	7.1	6.0	19.8	3.2
심천종합지수	중국	2,701.4	-0.9	0.1	0.8	11.7	8.5	28.1	6.7
항셍테크지수	홍콩	25,465.6	-1.0	-1.1	-4.6	0.9	-3.7	6.3	-0.6
TOPIX	일본	3,629.0	-0.6	-2.4	-4.2	7.7	14.5	33.6	6.5
니케이 225	일본	53,819.6	-1.2	-3.2	-5.3	9.0	19.9	45.2	6.9
니프티 50	인도	23,151.1	-2.1	-5.3	-9.9	-10.5	-8.3	3.4	-11.4
Vietnam	베트남	1,696.2	-0.8	-4.1	-7.0	1.0	0.9	27.9	-4.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3.1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한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금융: 사모 대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융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악화
- 산업재/경기소비재: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경우 악화될 수 있는 경제 및 소비에 대한 불안 반영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3/10	**트럼프 "이란 전쟁 거의 끝" 발언에 뉴욕증시·유가 급변동**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이 장중 급격한 변동성 나타냄. 뉴욕증시는 장 초반 중동 긴장 고조로 급락했으나 트럼프가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라고 발언하자 반등하며 상승 마감. 다우지수는 장중 약 900포인트 하락 후 상승 전환했으며 S&P500(+0.83%), 나스닥100(+1.38%)도 상승 마감. 국제유가 역시 WTI가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전쟁 조기 종료 기대가 반영되며 80달러대까지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 기록
3/11	**미국 2월 CPI 예상 부합…유가 급등에 시장 영향 제한**
	• 미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MoM +0.3%, YoY +2.4%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발표. 근원 CPI는 MoM +0.2%, YoY +2.5%로 약 5년 만의 낮은 수준 유지. 다만 이번 지표에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 실제 CPI 발표 이후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대에서 등락. 시장에서는 향후 유가 상승이 항공료 등 에너지 민감 항목을 중심으로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
3/11	**엔비디아,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에 20억달러 투자**
	• 엔비디아,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Nebius)에 20억달러를 투자해 약 8.3% 지분을 확보하며 AI 인프라 협력 강화. 네비우스는 엔비디아 최신 AI 컴퓨팅 기술에 대한 조기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5GW 규모 데이터센터 용량을 구축할 계획.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넘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
3/12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AI 데이터센터 부지 임대 협상**
	•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애빌린 AI 데이터센터 부지 임대 협상 진행. 해당 부지는 오라클이 자금 조달 문제와 OpenAI 요구사항 변화로 확장 협상을 중단하며 시장에 나온 크루소 개발 데이터센터로,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프로젝트 핵심 후보지. 메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경쟁 속 총 투자 규모는 수백억달러 예상
3/12	**미국 1월 무역적자 545억달러…예상치 하회**
	• 미 상무부, 1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545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 시장 예상치(666억달러 적자)를 하회했으며 전월 대비 184억달러 감소. 수출은 3,021억달러로 전월 대비 158억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3,566억달러로 26억달러 감소. 상품수지 적자가 818억달러로 175억달러 줄어든 반면 서비스수지 흑자는 273억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적자 축소에 기여
3/13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피의 복수" 첫 공개 성명**
	•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임 지도부가 사망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보복 의지 강조. 모즈타바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경고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적을 압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군 기지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지를 폐쇄하라고 경고. 이번 성명은 지난달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가 사망한 이후 약 12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
3/16	**IEA, 전략 비축유 4.1억배럴 글로벌 시장 방출 예정**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합의를 통해 총 4억1,000만배럴 규모 전략 비축유가 곧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 정부 비축유 2.7억배럴, 산업 비축유 1.2억배럴 등이 포함되며 약 72%는 원유, 28%는 석유제품으로 구성. IEA는 중동 전쟁이 글로벌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공동 대응이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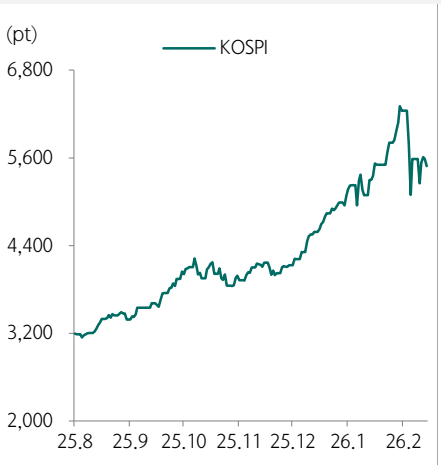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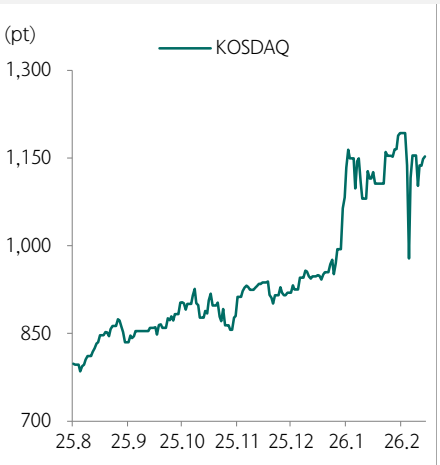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2	**3**	**4**	**5**	**6**
NCLH	CRWD, PLUG	AVGO, RGTI	CIEN, COST, KR	
9	**10**	**11**	**12**	**13**
HPE	ORCL, AVAV		ULTA, ADBE	
16	**17**	**18**	**19**	**20**
DLTR	LULU, TME, OKLO	MU	BABA, FDX, ACN	CCL
23	**24**	**25**	**26**	**27**
	LUNR			
30	**31**			
	N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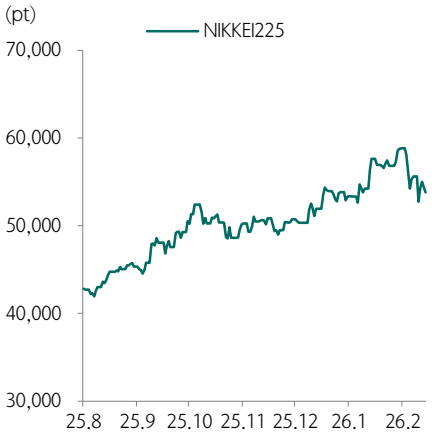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3/16(월)	• 미국 2월 산업생산 MoM (예상 0.3%, 1월 0.7%) • [3/16~3/19] NVIDIA GTC AI 컨퍼런스
3/18(수)	• 미국 2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1월 0.5%) • EIA 원유재고 (이전치 3.824M) • 미국 FOMC (예상 3.50~3.75%, 이전치 3.50~3.75%) *금리결정 3/19 03:00 KST
3/19(목)	• 미국 3월 2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20(금)	•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L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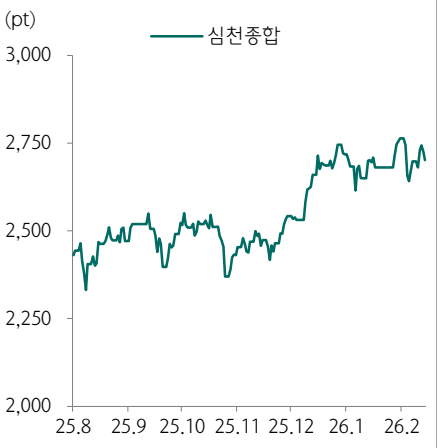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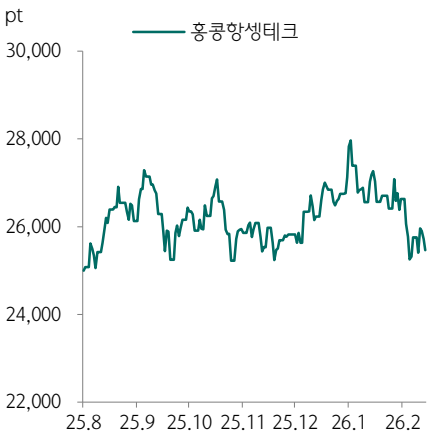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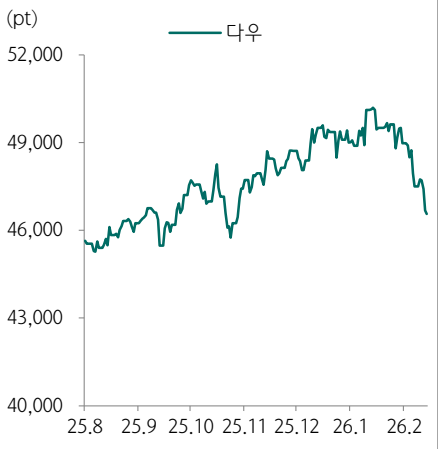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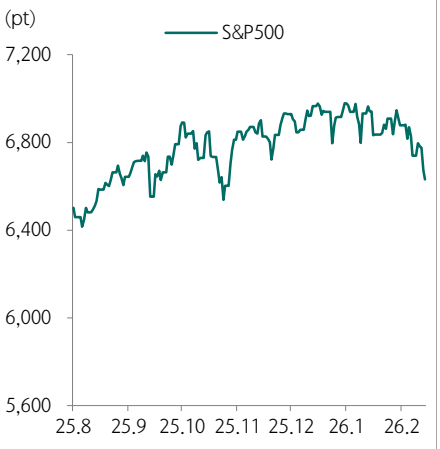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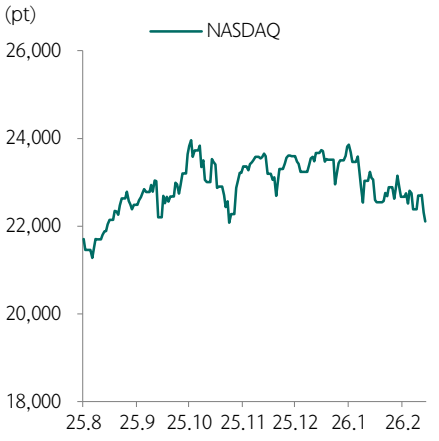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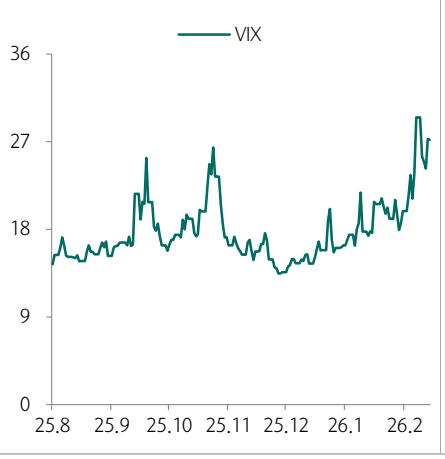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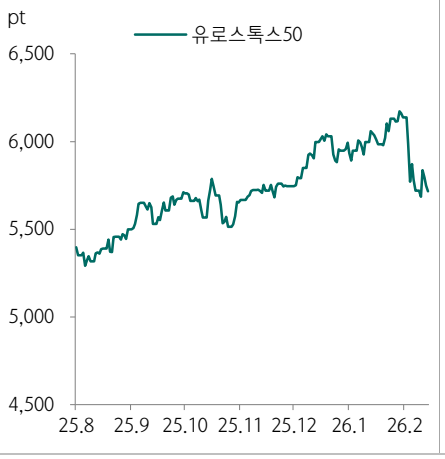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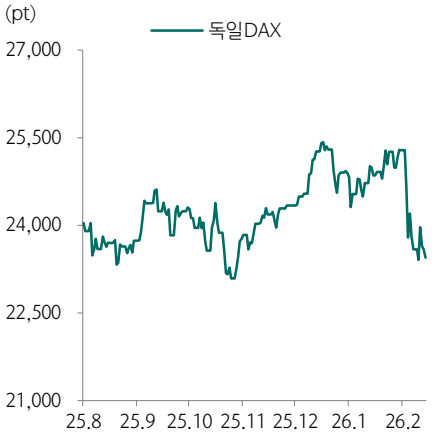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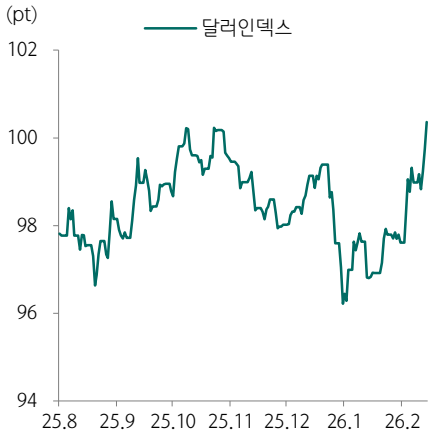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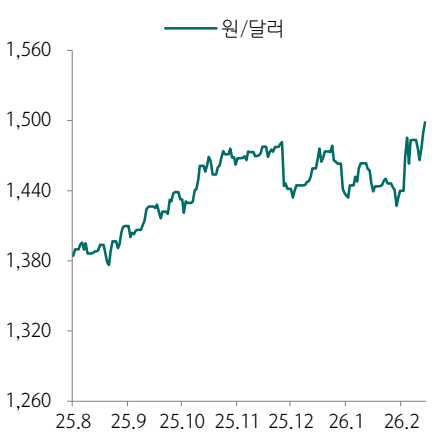

VIX
36
27
18
9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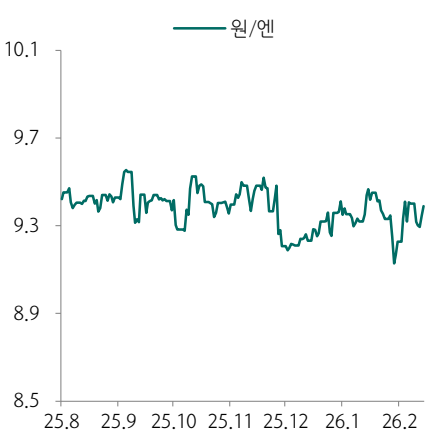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4,5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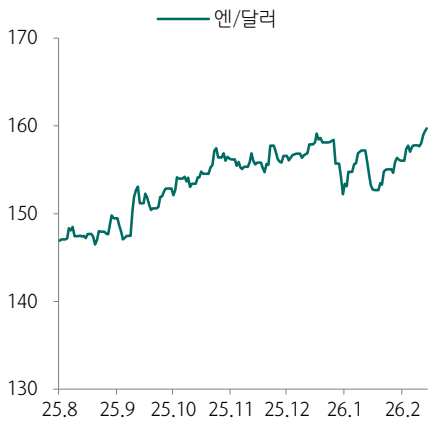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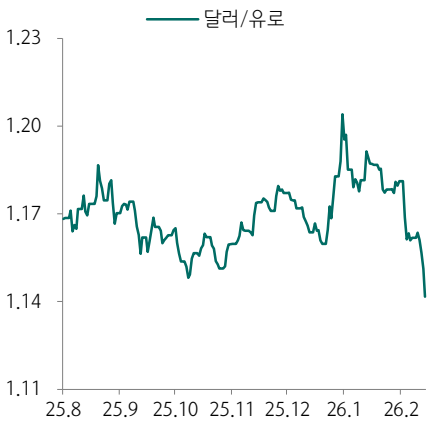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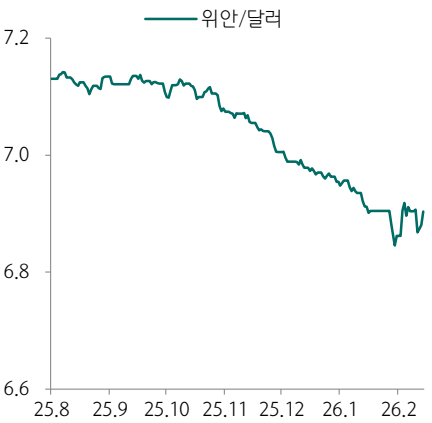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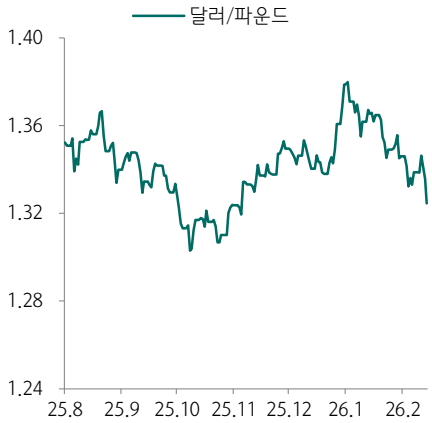

원/달러
1,560
1,500
1,440
1,380
1,320
1,26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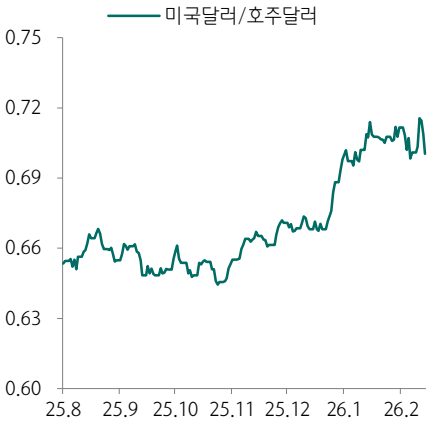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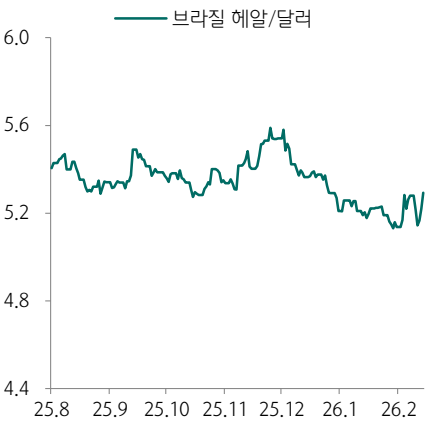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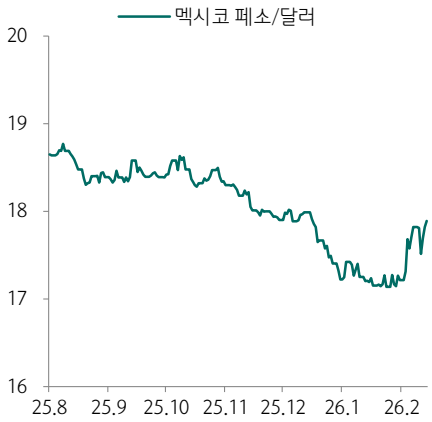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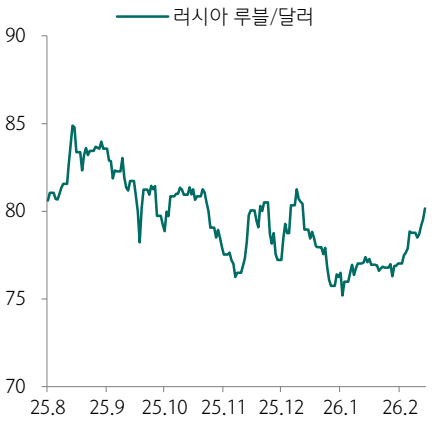

위안/달러
7.2
7.0
6.8
6.6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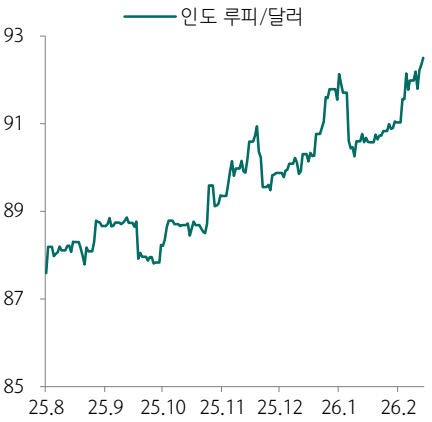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미국달러/호주달러
0.75
0.72
0.69
0.66
0.63
0.6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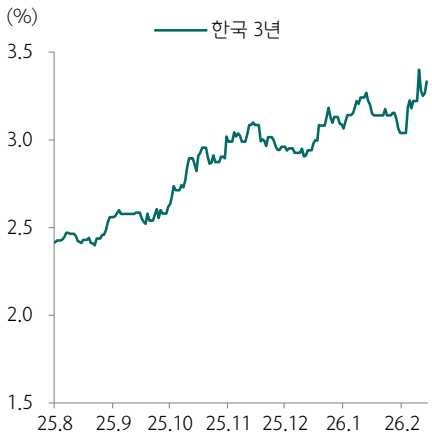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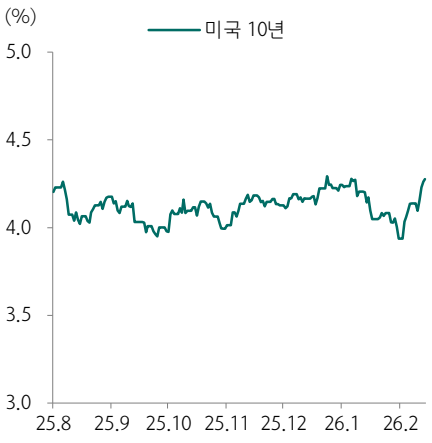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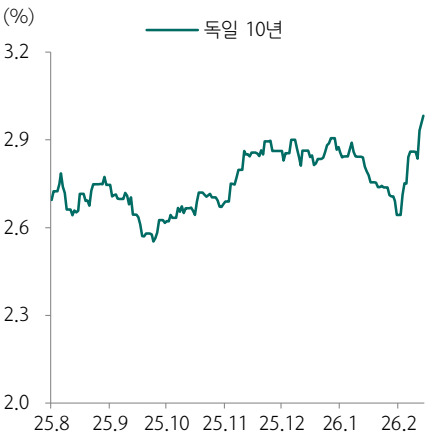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5
80
75
7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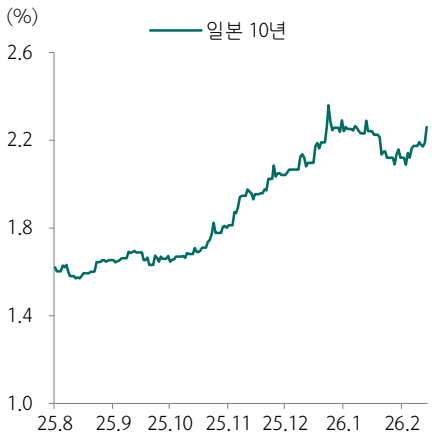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3
91
89
87
8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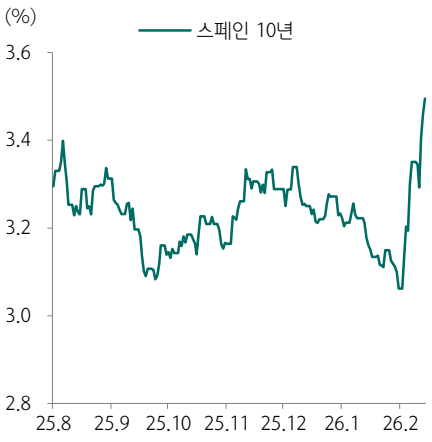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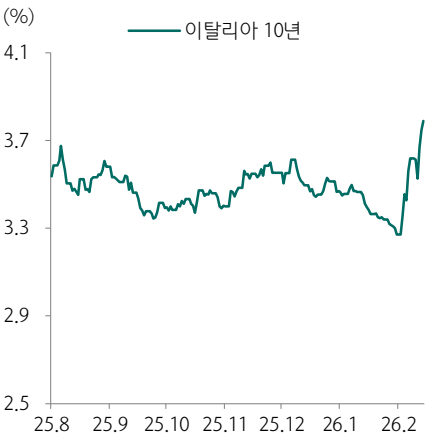

(%)
한국 3년
3.5
3.0
2.5
2.0
1.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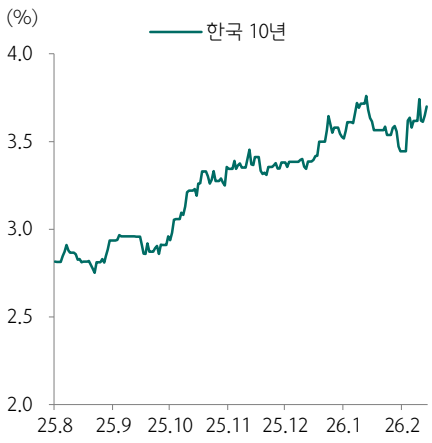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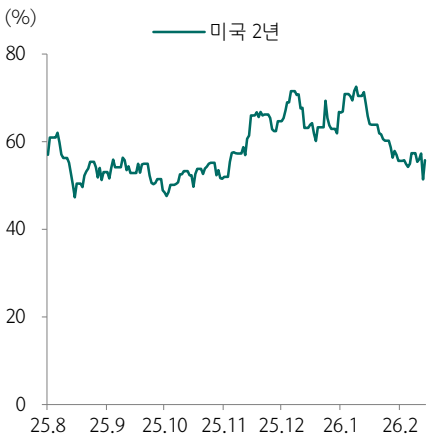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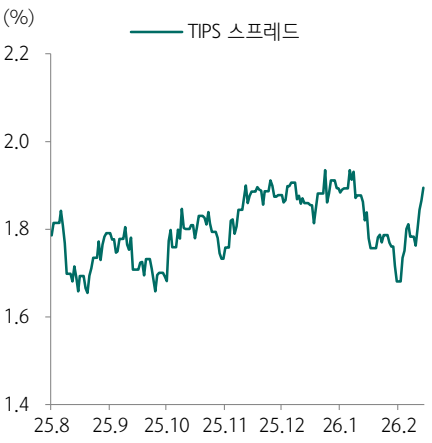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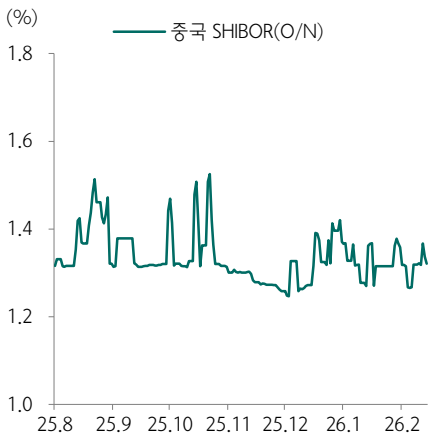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6
3.4
3.2
3.0
2.8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이탈리아 10년
4.1
3.7
3.3
2.9
2.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한국 10년
4.0
3.5
3.0
2.5
2.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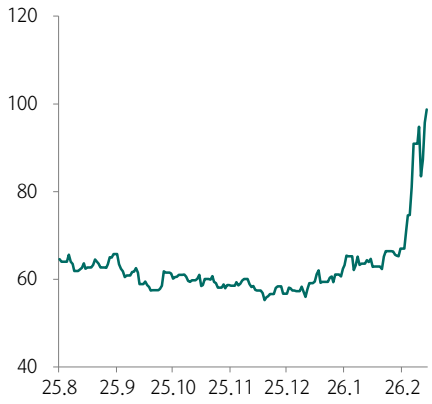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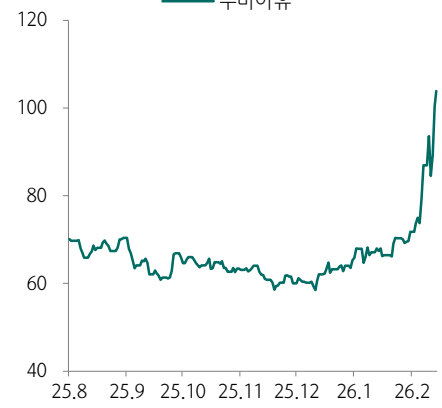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달러/배럴)) W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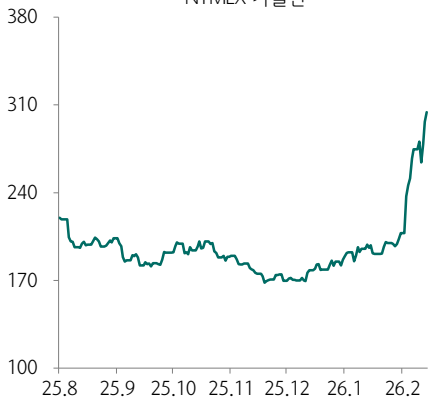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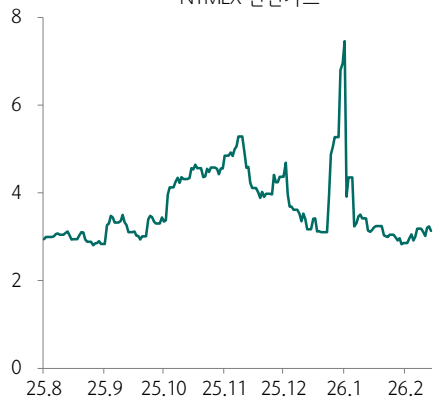
(달러/배럴)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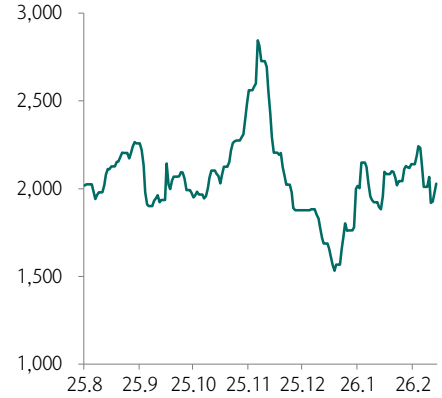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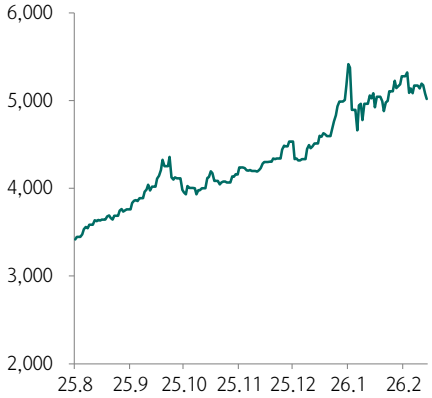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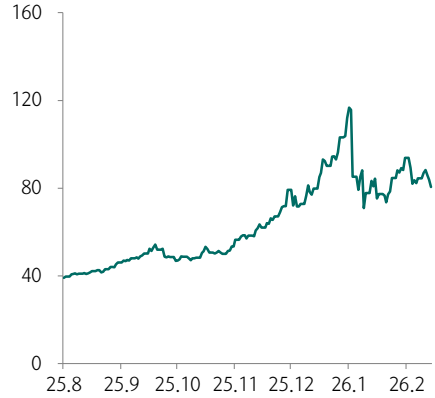
(pt) 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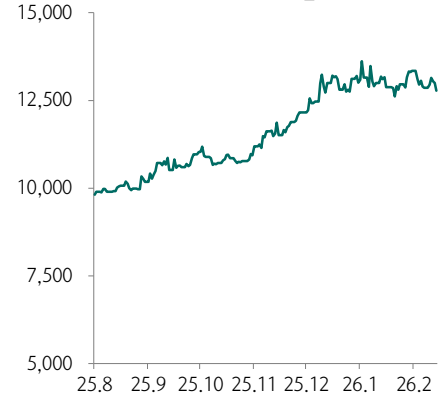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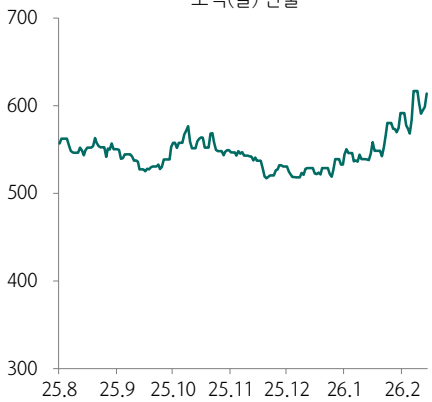
(달러/온스) 은 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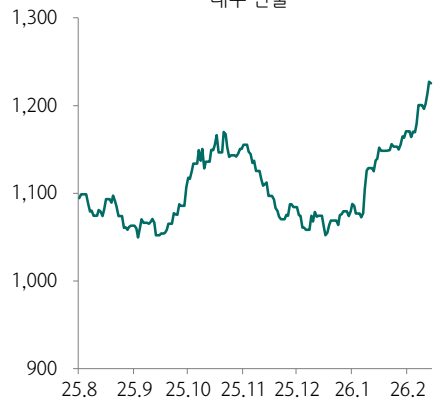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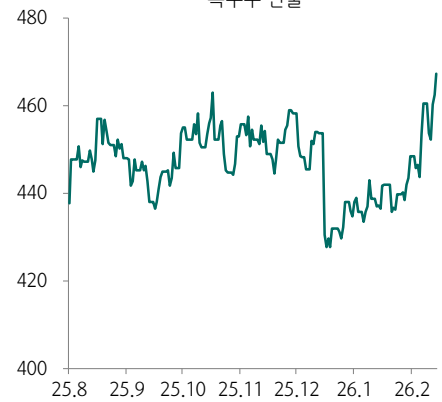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센트/부셀) 대두 선물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3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